

# 해방 이후 50년의 성과와 문제점

—중국 고대 소설 연구를 중심으로

洪 尙 勳\*

## 1

“문학이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문학 연구를 天業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話頭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에 T.W. 아도르노가 설파했던 예술(문학을 포함한)의 모호성<sup>1)</sup>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 하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자체로 본질론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수많은 立論들이 나왔음에도 아직 우리는 그것들이 인간의 知性史에서 차지하는 실효성에 대한 定論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인간 이성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대대적인 반성의 흐름을 반영하는 사조가 대두하면서 문학에 대한 定義를 시도하는 일조차도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대신 문학은 그 독자적이고 고유한 영역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포기하고 광범한 문화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존재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추세가 분명히 문학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

---

\* 서울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1) “예술에 관한 한 이제는 아무 것도 자명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즉 예술 자체로서도, 사회 전체에 대한 예술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그 존재 근거에 있어서조차 자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T.W. 아도르노, 《美學理論》(홍승용 譯, 서울: 文學과知性社, 1984, 11쪽.)

한 설명이 아니라 문학을 연구하는 집단에 제한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거의 모든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굳이 이론으로 정립하여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독자의 왕국<sup>2)</sup>’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이지 그것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품과 그것을 포함하는 ‘제도’로서 문학 예술에 대한 정의와 해설, 그리고 비평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산업 사회가 낳은 일종의 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생아의 사유 방식은 분석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해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感性의 混融에 의해 생성된 직관적 사유를 통해 세계를 통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문학 예술의 본질적 속성과는 선형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학의 본래적 개념과 속성이 이성적 사유의 분석적 범주 안으로 제한되고, 심지어 왜곡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특히 고대 문학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폐단이기도 하다.

결국 ‘문학’이나 ‘정치학’은 회고적인 가설에 의해서만 그리고 형식적인 유비나 의미론적인 놀이의 유사성에 의해서만 중세 문화 또는 고대문화까지 적용될 수 있는 최근의 범주들인 것이다. 17, 18세기에는 문학도 정치학도 나아가 철학도 과학도 언설적 장을 19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분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3)</sup>

분화되지 않은 것을 분석하여 이해하려 하는 시도들의 至難함과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널리 알려진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라는 비유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2) 이 용어는 김탁환에게서 빌어 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탁환, 독자의 왕국(《상상》6호, 서울: 도서출판 살림, 1994년 겨울), 66~84쪽을 참조 하기 바란다.

3)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이정우 譯, 서울: 민음사, 1993), 45쪽.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중국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중국 문화의 일반적인 성격은 특히 ‘文·史·哲의 未分化’라는 측면에서 확연한 이채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고대 문학’——이러한 개념의 사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일단 차치하고——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고대 소설’은 과연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인가? 고대 중국의 混融된 문화 속에서 ‘문학’ 혹은 ‘소설’이란 것을 과연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중국 고대 소설’을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원천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 先學들의 성과와 시행 착오 속에서 찾아 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그런 의문에 대해 아직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자 자신의 不敏함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작업과정에서 필자는 예기치 않게 ‘화법’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다. 필자가 위에서 영성하게 제기한 문제는 사실 거의 모든 문학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일 터인데, 그에 대한 연구 논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 답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보다는 세부 분야와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틀림 없이 필자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 의식 위에서 중국 고대 소설을 연구했을 기존의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 났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주로 연구자들의 ‘화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결정했다.

## 2

해방 이후 한국에서 중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대개 1980년대 이후 10여년 동안의 일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이전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제약으로 접근이 금기시되던 중국 대륙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화해 공존의 분위기로 들어선 사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분히 문학 外的인 요인에 힘 입은 바가 크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중국 문학 연구는 각 분야에 걸쳐서 數的으로만 보더라도 비약적인 성과를 내 놓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5·4 이전의 중국 소설에 대한 연구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에 '韓國中國小說學會'가 편찬한 《중국소설논총》 IV집에만 해도 무려 30편의 연구 논문이 실려 있다. 비록 이 논문집이 丁範鎭 선생의 華甲을 기념해서 엮어진 특집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필자가 확인한 1945년부터 1960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에서 나온 중국 고전 소설 관계 논문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수량이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연구 논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듯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1992년에 '한국중국소설학회' 주최로 이루어진 "중국 소설의 概念과 起源"이라는 개별 주제에 대한 학술 발표회가 그나마 꼽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후로 특히 '중국 소설의 기원'과 '소설사 기술'의 문제를 중심으로 몇몇 학자들의 개별적인 정리와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중국 고대 소설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학' 혹은 '소설'이란 것의 개념에 대

한 본질적인 회의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창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연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의의와 국제화 시대 속의 위상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문자 그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그러한 작업은 중국 문학이라는 거대한 밀림 속에서 ‘길찾기’에 몰두해 있는 필자와 같은 後學들이 이미 이와 비슷한 고민을 거쳐 갔을 여러 선배들의 글에 나타난 견해를 수렴하여 이정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194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 고대 소설에 관한 다양한 논저들을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 간략한 분석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필자의 분석 대상은 주로 국내 각 대학 및 소속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소논문들이며, 그 밖의 각종 학위 논문과 문예지 등에 실린 소논문,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논문류는 일단 제외시켰다. 그러나 석사 논문의 경우는 소논문으로 요약되어 학술지에 다시 실리는 경우가 많고, 박사 논문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필자가 검토한 원고들 속에서 국내 학자들의 주요 연구 분야나論旨 가운데 검토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문예지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학술지에 중복되어 실리거나, 아니면 학술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이 아니라 해도 필자가 제외한 부분에 특별히 중요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특히 필자가 조사한 학술지 가운데 缺號가 몇 권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둔다<sup>4)</sup>.

4) 필자가 조사한 학술지는 모두 75종이며, 그 제목은 본고의 <부록 1>에 정리해서 실었다. 그러나 서울대와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학술지와 ‘缺號’에 실려 있을 수 있는 논문류는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그러나 필자의 이 작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실 중국 고전 소설에 관한 제반 연구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별 성과를 따져서 시비를 가리고 전망을 제시하는 작업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그 대신에 필자는 다만 한국의 학자들이 외국 문학의 하나로서 중국 고대 소설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談話의 방법——‘話法’을 중심으로 한 개론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분히 개인적인 所見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 3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필자는 본고의 정리와 논의상의 편의를 위해 해방 이후 1995년까지 총 308편의 논문들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위의 표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가·작품론’은 주로 漢代 이후의 작품(작품집) 내지 작가에 관한 논의(판본 연구를 포함)를 가리키며, 비교문학으로 분류된 것은 제외했다. 둘째, ‘비교 문학’은 중국 이외의 국가와 관련된 작가 및 작품의 비교 연구만을 포함한다. 셋째, ‘기타’ 분야는 소설사론, 장르론, 창작론(기법, 구조), 그리고 주로 漢代 이전의 신화와 寓言에 관한 연구를 포괄한다.

물론 연구의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분류에 변별성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은 필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후의

---

작업의 성격과 필자의 여력의 한계로 인해 미처 보완하지 못했다.

구 분		총계 (편)	작가·작품론	비교문학	기타
연 도 별					
총 계		308	133	55	120
1945~60		3	0	2	1
1961~70		9	5	4	0
1971~75		8	3	4	1
1976~80		22	9	6	7
1981~85		48	22	8	18
1986~90	총 계	68	30	8	30
	1986	18	7	2	9
	1987	12	8	1	4
	1988	13	3	1	9
	1989	15	7	2	5
	1990	10	5	2	3
1991~95	총 계	150	64	23	63
	1991	12	6	3	4
	1992	28	15	2	11
	1993	29	14	8	7
	1994	38	19	5	14
	1995	43	10	5	27

<표 2> 연도별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 현황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진행되지만 세부적인 논평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이르면 분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필자의 작업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토론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태도와 화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위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발표된 논문의 수량 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발표된 논문의 수량이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의 5년 동안 급격히 늘어서 1980년대 10년 동안의

논문 총 수량보다 많다는 점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1980년대에 시작된 중국학 열풍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고대 소설 이외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이 소설 분야에 관련된 특수한 현상만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1980년대의 신진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서구 문예 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중국 문학을 새롭게 조망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여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비교문학 분야의 연구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0년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서구의 리얼리즘 문예 사조에 대한 관심을 부추길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른바 ‘민중문학’에 대한 광범한 관심이 한국 문학계에서 하나의 대세를 이루면서 서구 리얼리즘 문예 이론과 그와 짝을 이루는 ‘문학 사회학’이라는 연구 방법이 신진 학자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위 도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작가·작품론’과 ‘기타’로 분류된 논문의 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물론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각 시기별로 연구 논문들 사이에 관점과 방법론의 세련도와 치밀성에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단순한 수량의 비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도표의 결과는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의 중국 고대 소설 연구자들이 줄곧 고대의 작가나 작품에 대해 고립적인 이해나 평가보다는 문학사의 전반적인 추세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소설의 하위 장르에 대한 <표 2>와 같은 분류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류의 목적이 기존의 연구 결과가 소설사의 각 방면을 두루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면, 분류 자체의 합당성은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논외로 삼아도

구분 연도별	神話	寓言	志怪	傳奇	(擬)話本	章回體	清末
총 계	24	21	16	20	37	72	25
1945~60	0	0	0	0	0	0	0
1961~70	1	0	0	2	0	2	2
1971~75	0	2	0	0	0	3	0
1976~80	3	3	0	4	1	5	2
1981~85	4	6	0	2	5	12	5
1986~90	5	7	6	5	11	18	5
1991~95	11	3	10	7	20	32	11

<표 3> 특정 하위 장르에 관한 연도별 연구 논문 발표 현황

좋을 듯하다. 요컨대, 위에서 필자가 마련한 두 도표는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 <표 1>의 분류에 따른 각 항목별 연구 성과와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 미리 밝혀 둘 것은, 이러한 고찰에서 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인 연구자의 성명이나 연구 논문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겠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자칫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경솔히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 4

먼저 ‘작가·작품론’으로 분류된 총 133편의 연구 논문들은 중국 소설사에서 취급되는 각종 작품과 작가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음으로써 중국 소설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 놓았고, 또한 작품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을 시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異說이 난립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와 판본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 추론들은 기존 소설사의 자료적 측면을 보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133편의 논문들을 발표 연대별로 정리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즉, 1980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연구 경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로 하나의 작품을 다루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1980년대 중국 문학계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보다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시기에 들어서 단일한 작품(작품집)보다는 두 개 이상의 작품(작품집)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拍案驚奇》나 《古今小說》을 단일한 작품(작품집)으로 간주한다면, 적어도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980년 이전에 두 개 이상의 작품(작품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도 보이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 1995년까지는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개 작품의 특정한 유형(애정 고사, 영웅 고사, ‘發跡變泰’ 고사, 夢幻類 소설 등)이나 주제(반봉건 의식, 이상 세계 등), 題材 및 모티프(鬼, 娼妓, 士人 등), 기법(작품의 구조, 제재 및 인물의 형상화 등)을 기준으로 특정 시대의 특징 혹은 通史的 轉變을

다루고 있다.

작품론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 경향의 ‘圖式性’을 극복하기 위한 시함과 모색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기존 연구의 도식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보다도 ‘연구의 고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을 다루는 기존 연구의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는 어떤 작품의 작가와 판본에 대해 그야말로 ‘간략하게’ 고찰하고, 작품의 내용과 주제(혹은 주제 사상)를 정리하고, 주로 제재의 측면에서 후세 작품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는 등의 ‘틀’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은 제재(혹은 소재)의 측면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대개의 경우 고찰 대상이 되는 작품의 문학사적 미학적 우수성을 ‘확인’<sup>5)</sup>하는 차원에 머물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八股文’의 틀 안에서는 고찰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동일한 장르의 다른 작품과 종횡으로 맺고 있는 다층적이고 탄력적인 관계가 소홀히 취급되고, 작품을 하나의 고정적이고 완결된 텍스트로 간주하는 폐단이 드러난다. 그러나 아마 보편화되어 가는 현대적 관념 속에서 작품이란 “직접적인 단위로서도, 확실한 단위로서도, 등질적인 단위로서도 생각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著者’의 개념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변해 버린 지 오래이다<sup>6)</sup>. 따라서 이러한 ‘팔고문’의 고립성은 문학 예술을 둘러싸고 진행

5)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연구 대상에 대한 다분히 주관적인 애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것은 어쩌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그 작품이 연구자 자신에게 흥미를 끌었던 최초의 상황과는 달리, 혹은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논문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를 꺼리는 한국 학계의 은밀한 관습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미셸 푸코, 앞의 책, 46~48쪽 참조. 아울러 같은 책 138쪽에서 푸코는 이렇게 말한다: “저자가 부재하는, 스스로를 은폐시키는, 스스로를 위임하는 또는 스스로를 분할하는 것은 문학에 고유한 현상이다.”

되고 있는 현대의 첨예한 논의들에 대해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실정을 드러내 주는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기존 연구의 ‘고립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론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반박 불가능한 定論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문과학, 특히 문학 연구의 속성이라면 문학과 문학 장르에 관한 현대의 이론도 결국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더욱 문제 삼는 것은 작품 자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의, 그리고 그들과 그 밖의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팔고문’의 첫 번째 요건인 작가와 작품에 관한 고찰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 보면 필자가 의미하는 의사 소통의 단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의 ‘三言’에 관한 거의 모든 논문들은 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비슷한 틀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부분에 대해 중복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연구에 관해 한국의 다른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을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 ‘原書’와 해외(주로 중국)의 ‘2차 자료’를 통해 각자의 결론을 이끌어 낸 이후에야 ‘餘力’을 써서 연구의 본래 주제에 접근하는 비효율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다른 연구자들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현상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고립성이 결국 작품 연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굳이 지난 시절의 폐단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한 까닭은 1980년대 이후의 작품론들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폐단의 遺習

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흔히 거론되는 ‘用語의 통일 문제’는 차라리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작품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美學的 용어들의 난립<sup>7)</sup>은 이미 언급한 대로 그야말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론을 통한 고찰이라는 시험적 단계에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진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대개 작품의 특정한 類型이나 주제, 題材 및 모티프, 기법 등을 기준으로 특정 시대의 특징 혹은 通史的 轉變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연구들 또한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다른 의미의 ‘고립성’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연구들 가운데 연구의 성과를 대상이 되는 작품이 처한 시대의 문학적 상황 또는 소설사 전반의 흐름——그것이 ‘발전’이건 ‘변화’이건 상관 없이——과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三言’과 같은 一群의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反封建 意識’과 같은 특정한 주제의 개입 양상과 그것의 시대적 의의를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업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엄격한 장르 개념을 고집할 생각은 없지만(사실은 그럴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연구가 ‘소설’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그 시대에 왜 그런 주제가 굳이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연구는 ‘소설’에 나타난 ‘反封建 意識’이라는 주제가 그 이외의 다른 형식, 예를 들어서 ‘詞’나 ‘曲’에 나타난 바

7) 서로 혼동되면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結構’와 ‘構造’를 들 수 있으며, 이밖에 ‘典型’, ‘形象(化)’, ‘諷刺’, ‘反封建性’ 등도 연구자마다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용어들로 꼽을 수 있다.

슷한 주제와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지 못한다<sup>8)</sup>. 아울러 이 경우 역시 ‘팔고문’적인 과거의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저자와 작품 텍스트의 同質性 여부에 대한 푸코 類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요컨대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대 중국의 문학사와 소설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의 요건들을 제한된 시각 안에서만 고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문학이란 것도 광범한 의미에서 일종의 ‘特異화된 言表 행위’라고 생각하며, ‘장르’——여기서는 이 용어를 가장 좁은 범주에서 특정한 문학 형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자——의 출현과 변천은 ‘언표 행위’를 둘러싼 제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복잡하고 다층적인 變換에 의한 결과물, 곧 다양한 소통의 법칙들이 구성하는 체계——이것을 ‘역사’라고 하자——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작품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식으로건 그것을 나타나게 만든 그 ‘관계의 網’을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5

이제 논의의 초점을 ‘비교문학’ 항목으로 돌려 보자.

필자는 이미 앞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구 논문들을 분류하는데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 ‘비교문학’만큼 모호한 항목도 없을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는 ‘순수한 독서’라는 것은 없다는 밀러(J. H. Miller)의 단언<sup>9)</sup>이 아니더라도, 모든 문학 연구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비교’

8) 여기에 대해서는 ‘기타’ 분야에 포함된 장르론을 언급하면서 다시 논하게 될 것이다.

9) 이러한 내용은 밀러의 저작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서문’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희병, 《비교문학》(서울: 민음사, 1994), 167

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문학(Weltliteratur)’으로서건 ‘일반문학(littérature générale)’으로서건 적어도 우리가 ‘비교문학’이라는 분야를 거론할 때는 시대와 상관 없이 공간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문학 관계를 다루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sup>10)</sup>.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비교문학’으로 분류한 연구 논문들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고대 소설 사이의 문학적 관계를 다루는 논문들로 한정되어 있다<sup>11)</sup>.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논문들은 주로 중국 문학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며, 양적 질적으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한국 문학 연구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조사한 학술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까닭에, 전자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필자가 조사한 이 분야의 논문 55편<sup>12)</sup>은 주로 중국 소설의 한국 傳入과 번역, 그리고 한국에서 소설의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중국 고대 소설 작품의 개별적 전입과 번역, 한국 古小說에서 傳記體(假傳을 포함)의 형성과 變容, 그리고 특정한 故事의 淵源에 대한 고찰 등을 중심으로 한 ‘영향과 수용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자료 사냥’이 이 분야의 주류를 형성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외국 문학의 하나로서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기본적 의의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구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

~16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윤호병, 앞의 책, 32~33쪽 참조.

11)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安炳國의 “淸末에서 文學社團까지의 翻譯文學活動狀況——小說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 12집, 영남대, 1986, pp.149~172)처럼 한국 이외의 외국과 중국 사이의 문학적 관계를 다룬 논문도 있다.

12) 이 가운데 적어도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는 대략 閔寬東, 朴晟義, 朴在淵, 宋眞韓, 安乘高, 李明九, 李相圭, 丁奎福, 崔溶澈 등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중국 문학 연구자들과 한국 문학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듯하다. 필자가 조사한 논문들 속에서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중국 문학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한국 문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보기 힘들며, 그 반대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한·중 비교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이 ‘영향과 수용의 역사’에 대한 규명으로 흐르게 만든 주요 원인이 전반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선호하는 학계 풍토보다 이러한 의사 소통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고대 문학의 형성과 변천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시각이 비교문학의 연구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토——대륙이건 臺灣이건 상관 없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한 ‘附庸’이 아닌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의 정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어떤 측면에서건 도움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증적인 것을 선호하는 연구 풍토의 변화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텍스트 자체가 非同質的인 탄력성을 담지한 것이므로 실증적 탐구가 지향하는 고정성과는 본질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주로 고대 神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 형성되고 있는 연구 경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현대의 ‘탈중심주의’적 사고와 ‘상호텍스트성’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이들 연구는 ‘中原(또는 中華)’의 권위적 위상을 해체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문화를 그와 동일한 위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고대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목적성’ 강한 假說을 검증하기 위해 고대의 자료를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sup>13)</sup>라는 점과, 동양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에 서양적인 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은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점에 따른 연구가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축적하게 되면 비교문학 분야에서도 ‘영향과 수용의 역사’라는 고정적 시각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관점, 혹은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통한 고대 중국의 이해와, 이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문학적 관계에 대한 주체적 재조명을 개별 장르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한·중 비교문학의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앞에서 필자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120편의 연구 논문들은 소설사론, 장르론, 창작론, 그리고 신화와 寓言에 관한 연구 등을 포괄한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실증적’이라기보다는 ‘理論的’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분야는 바로 그런 이론적 성격 때문에 비록 ‘개론적’일지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왈가왈부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필자는 이미 밝힌 이 글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허용된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필자의 ‘所見’을 밝히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단일 시대 혹은 단일 장르를 넘어선, 중국

13) 여기에 대한 지적은 徐敬浩, 《山海經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8~1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대 소설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인데,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1980년대의 특수한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중국 소설의 개념(혹은 小說觀)과 발생에 관한 논의들이 연구 논문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sup>14)</sup>,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중국 고대 소설사에 관해서는 주로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 부여된 권위와 그 한계에 대한 확인과 극복 방안의 모색이라는 大命題 아래 비교적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신진 학자들에게 魯迅의 극복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훌륭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소설사에 대한 고민은 의욕을 주는 자극제이자 동시에 절망의 문턱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학과 역사라는,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두 개의 개념 축 사이에서 진동하는 소설사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이미 陳平原의 고뇌에 찬 고백을 들어 본 일이 있거니와<sup>15)</sup>, 獨自的인 소설사 記述이 아

14) 1990년 이전의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丁範鎮, 中國小說의 概念的 變遷에 관한 研究(《대동문화연구》 14집, 성균관대, 1981)

全寅初, 中國小說 觀念의 演變 考釋(《延世論叢》 19집, 연세대 대학원, 1982)

白禎喜, 中國古代文言小說研究(《중국학논총》 2집, 국민대 중국학연구소, 1986)

徐敬浩, 中國小說의 發生과 初期 儒家思想(《중국어문학》 15집, 한국중국어학회, 1988)

尹河炳, 中國古代小說觀考: 先秦~唐代(《중국인문과학》 7집, 전남대, 1988)

全寅初, 中國古代小說史研究, (《인문과학》 60집,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 1988)

15) 陳平原, 《小說史——理論與實踐》(北京大學出版社, 1993) 참조.

직 시도조차 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런 논의가 덜고 설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다. ‘目的論’과 ‘서구적 偏向’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의 출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중국 고대 소설사에 대한 논의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논의와 더불어 예정된 시행 착오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직접적으로 소설사의 기술을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장르로 묶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 문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혹은 그 이전부터, 오늘날 우리가 ‘문학적임(literariness)’을 말할 수 있는 敘事體는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굳이 因果論的은 아니라 해도) 그러한 서사체의 轉變과 明滅을 야기한 역사 속의 ‘不和의 空間들<sup>16)</sup>’ 사이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중국 고대 소설사의 기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임은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의 방법론적 탐색들<sup>17)</sup>은 본격적인 소설사 기술의 시험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도 중국 고대 소설사 기술에 중요한 초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중국 소설의 발생기의 신화와 ‘志

16) 이 용어는 푸코에게서 빌어 왔다: “모순을 거대한 존재의 準야상곡적인 통일성 속에서 기초지우고자 하는, 또는 그들을 해석 내지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일반적인, 추상적인, 그리고 균일한 원리로 전환시키는 지성사와는 달리, 고고학은 상이한 불화의 공간들espaces de dissension을 기술하는 것이다.”(미셸 푸코, 앞의 책, 214쪽.)

17) 이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徐敬浩, 中國小說의 起源에 대한 再檢討(《중국소설논총》 I, 1992)

鄭在書, 中國소설의 이념적 定位를 위한 시론 — 발생론을 중심으로(《중국소설논총》 III, 1994)

趙寬熙, 中國 소설의 기원과 개념 정의를 위한 시론(《중국소설논총》 IV, 1995)

崔溶澈, 中國소설사의 서술 체계와 유형의 분류(《중국소설논총》 IV, 1995)

怪'18), 寓言과 '傳記'類19)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 고대 소설에 관한 연구의 범위가 《史記》와 같은 역사 기록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20)을 제외하면, 唐代 이후의 중국 소설사에서 특정한

18) 이 분야에 대해서는 徐敬浩, 鄭在晝 교수의 연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 연구 논문들이 있다.

全寅初, 소설의 원류로서 중국 신화, (《연세논총》 4집, 연세대학원, 1977)  
김세환, 중국 신화의 변천과 문학, (《중국어문논집》 창간호, 부산경남 중국어문학회, 1984)

羅景洙, 禹王神話의 變異攷, (《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 21집, 전남대, 1992)

賓美貞, 中國 古代 神話의 人間創造와 再造, (《중국문학》 20집, 서울대, 1992)

朴昭賢, 위진남북조 지괴의 서사적 특수성 분석, (《동아문화》 32집, 서울대, 1994)

金善子, 敍事文學 初期形態로서의 神話—古代 史詩를 중심으로(《중국 소설논총》 IV, 1995)

徐裕源, 중국 고대 주요 시조 신화 중 棄子神話에 보이는 遺棄 모티브의 연구, (《중국어문학》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陸完貞, 西王母神話의 文學적 수용, (《인문과학논총》 13호, 명지대, 1995)

田寶玉, 중국 서사시의 초기 형태(《중국소설논총》 IV, 1995)

19) 安秉高의 연구 성과 외에, 이 분야의 주요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曹壽鶴, 假傳體小說考, (《중국어문학》 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1982)

權錫煥, 先奏 寓言의 형식 연구, (《중국문학연구》 7집, 성균관대 중국문학 연구회, 1989)

李相高, 古代 傳記의 本質과 文學的 展開, (《명지어문학》 19호, 명지대 국문과, 1990)

權錫煥, 先秦寓言의 敎訓(敎述)의 장르 본질과 敍事指向性, (《중국소설논총》 II, 1993)

權錫煥, 《史記》傳의 장르적 고찰(《중국소설논총》 III, 1994)

權錫煥, 盜跖 寓言故事의 敍事的 收容 樣相(《중국소설논총》 IV, 1995, pp.15-23)

吾洙亨, 明代의 寓言文學研究(《중국문학》 24집, 서울대, 1995, pp.239-268)

20) 이에 관한 논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朴宰雨, 史記寫作技巧擧例探討, (《중어중문학》 6집, 전남대, 1984)

朴宰雨, 史記寫作技巧의 抽樣分析—以項羽本紀與商君列傳爲例, (《중국연구》 8권, 한국외대, 1984)

朴宰雨, 史記寫作技巧의 追加抽樣分析 —以留侯世家·田單列傳·李將軍列傳爲例, (《논문집》 18집, 한국외대, 1985)

하위 장르에 대해 폭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므로 필자는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소설사를 기술하는 데에서 이러한 연구가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서 범위와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작품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화법’의 재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건 중국 고대 소설사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서 필자가 ‘개론적 차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그 논문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중국 문학사와 소설사에서 唐 傳奇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①古文運動의 영향, ②科擧와 溫卷의 영향, ③경제 번영의 영향, ④도교와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요약되며, 필자가 조사한 대부분의 논문들 또한 그 이상의 무엇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우선 그것들이 唐 傳奇를 발생시킨 원인만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溫卷으로 사용되던 것은 비단 傳奇 작품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唐代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詩도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溫卷의 행위에 詩를 더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金聖日, 史記褒貶義法淺談, (《중국인문과학》 6집, 전남대, 1987)

金聖日, 史記譏刺技巧小考, (《중국인문과학》 8집, 전남대, 1989)

金聖日, 史記列傳人物描寫技巧小考, (《중국인문과학》 11집, 전남대, 1992)

權錫煥, 《史記》傳의 장르적 고찰, (《중국소설논총》 III, 1994)

21)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趙英規, ‘三言’故事的淵源 및 影響考(《중국학보》 21집, 서울대, 1980)

崔奉源, 中國俠義小說의 產生에 관하여(《중국문학연구》 2집, 성균관대, 1984)

具良根, 中國에 있어서 譴責小說의 發展과 作用(《중국학연구》 2집, 외국어대, 1985)

白禎喜, 中國古代文言小說研究(《중국학논총》 2집, 국민대 중국학연구소, 1986)

잘 알려진 杜甫의 ‘諫謁詩’와 같은 것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唐代의 科擧制度에서 ‘要路’에 이르는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進士科가 詩를 통해서 官리를 선발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문장(文)’이란 어떤 형식으로건 ‘道’와 관련되며 그 ‘道’를 밝혀 전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述而不作’(《論語·述而》)과 ‘不語怪力亂神’(《論語·子路》)의 원칙을 고수하던 정통 문인들이 왜 ‘作意好奇<sup>22)</sup>’의 傳奇體를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六朝 시대까지만 해도 ‘文’의 범주에 들지 못해서 대부분의 문인들이 외면했던 것으로 보이는 敘事體<sup>23)</sup>가 唐代에 이르러 이렇듯 광범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미 밝혔듯이, 문학이란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지성의 활동에 의해 특별하게 변형된 ‘言表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필자로서는 唐 傳奇가 단순히 이러한 표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설명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변형된 言表 행위의 하나로서 ‘傳奇’라는 형식을 발생시킨 당시 文人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던 ‘不和의 空間’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필자는 唐 傳奇나 그 이후의 白話小說과 관련하여 그 故事의 淵源 및 영향을 따지는 논문들에서도 ‘화법’의 모호함을 느낀다. 이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문헌의 탐색을 통한 ‘실증적’ 차원에서 그치고 말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진 素材나 題材의 관련

22) 胡應麟, 《少室山房筆叢·二酉綴遺·中》(黃霖·韓同文, 《中國歷代小說論著選》, 江西人民出版社, 1982, 151쪽 참조.)

23) 蕭統의 《文選》에 분류된 ‘文’의 범주 속에서 敘事體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史論’——‘史’ 또는 ‘記史’가 아니라——과 ‘行狀’, ‘碑文’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들은 더 넓은 의미의 ‘論’이나 ‘頌’, ‘弔文’에 포함되는 것들로서 이야기의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한 문장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이 궁극적으로 敘事體——이것을 ‘敘事 樣式’이라고 하건 ‘하위 장르’라고 하건——의 轉變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無知의 所致일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국 고대 소설의 연구에서 이야기의 淵源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될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고대 소설사의 이해와 관련해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楊貴妃의 이야기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詩와 傳奇라는 다른 양식으로 묘사되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만약 어떤 차이가 발견된다면 당시의 문인들로 하여금 그 차이를 인식하도록 만든 變換 요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志怪와 傳奇(혹은 白話小說)에서 모두 발견된다면 그것을 서술하는 體裁나 형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같은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서술되어야 했는가?

‘言表 행위’의 하나로서 문학에 포함되는 敘事體는 반복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의미와 형식의 내적인 增殖에 의해 충분히 重複될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장르의 출현과 변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의 내적인 증식 과정을, 그것을 둘러싼 제반 요소들의 변환을 이해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장르의 생성과 변천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고립된 체계 내에서가 아니라 중국 문학사 전반을 포괄하는 關係網 속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측면에 착안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필자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24) ‘言表’의 속성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푸코, 앞의 책, 17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무감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그들의 문제 의식이 글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싶다. 결국 필자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이 자신들 사이의 ‘의사 소통의 단절’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확인된 문제 의식과 그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해법을 명료하게 밝히는 화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나타난 신화, 우언, ‘傳’體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중국 고대 소설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이들 연구 가운데 신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소설의 ‘기원’ 혹은 ‘발생’을 서사 문학의 일반적인 진행 양태와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에 선 연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서양을 포괄하는 서사 문학의 보편적 진행 원리를 중국 고대 소설사에 적용시키려는 이들 연구의志向은 서구 편향적이라는 비판 앞에서 辯論이 공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우선 이런 입장에 선 연구자들이 ‘일반론’이라는 이름으로 차용한 이론이 서구의 소설사와 서구의 논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중국의 신화가 서구와는 달리 체계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歷史化된 斷片性’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傳’과 같은 고대 중국 특유의 敍事體와 그 변천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고대 중국의 특수한 환경을 강조함으로써 서구 소설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관점에 치중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주로 현존하는 고대 중국의 문헌에 의존하는 이 연구들 역시 문헌 자체의 한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문헌이란 것은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거기에는 저술(기록)자의 개인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논리 전개의 근거로서 정체성이 허약하

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에 관한 고대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관점의 연구는 고대 중국의 소설사를 ‘識字層’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자체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고대 문학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어차피 문헌으로 기록되어 남은 작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완고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그 ‘기록된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제반 여건들 가운데 결코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口述의 傳統’을 당시 식자층의 문헌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국 고대 소설사의 초기 단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sup>25)</sup> 각각의 단점을 극복한 일반론과 고유성의 ‘발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가 거의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반영한 성과물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연구자들 간의 의사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는 ‘화법’의 문제로 풀이한다. 필자가 느낀 바에 따르면, 이 분야의 논문들은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진술에 대단히 소홀하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辯論에 치우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서 모든 논술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필자와 같은 고지식한 독자는 그 논문의 저자가 기존의 연구 경향이나 성과는 어떠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논문의 論究 결과가

25)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제기된 문학사 혹은 소설사에 대한 源泉的 懷疑—예를 들어서, 프랙탈(fractal) 차원에서 나타나는 작품과 장르의 自體內的 辨別 不可能性, 縱約인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 왕왕 제기되는 ‘경계선’의 海岸線과 같은 流動性 등이 대표적이다—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보류하자.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에 어떤 점을 補充 혹은 修訂했는지 머리 아프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추론에는 수없이 많은 오류——나아가 오해——의 가능성이 介在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기타’ 부류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美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련의 이론적 탐색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대 중국인들의 실제적인 창작 기법론에 관한 탐색<sup>26)</sup>이라면, 다른 하나는 전자보다는 좀 더 관념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虛實論’으로 대표되는 고대 중국인들의 허구에 관한 문예론에 대한 탐색<sup>27)</sup>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역시 1980년대에 들어서 중국 대륙에서 주로 고대의 소설 ‘評點’과 ‘序跋文’을 중심으로 이들 ‘미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작품의 등장 인물들에 나타난 典型性和 작품의 構造(結構), 그리고 理論史에 대한 왕성한 연구 성과들<sup>28)</sup>이 발표된 데에서

26) 대표적인 논문을 몇 개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閔惠蘭, 毛宗崗의 評點《三國志演義》考(《중국인문과학》 7집, 전남대, 1988)

閔惠蘭, 金聖嘆의 小說技法論에 대하여——〈讀五才子書法〉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I, 1992)

許庚寅, 金聖嘆《水滸傳》評點研究——主題觀爲主(《중국문학연구》 10집, 성균관대, 1992)

27) 대표적인 논문을 몇 개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李鎮國, 晚明小說論 試探——小說‘序跋文’의 虛構意識을 통해 본 創作論 (《중국문학》 14집, 서울대, 1986)

李騰淵, 古典小說批評中の‘虛實論’小考, (《중국소설논총》 I, 1992)

洪尙勳, 中國文學에서 虛構에 대한 認識論的 轉換——明末·清初의 小說論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II, 1993)

李騰淵, 清代 小說理論中の‘本質論’研究, (《중국소설논총》 III, 1994)

28) 대표적인 것들로 葉郎의 《中國小說美學》(北京大學出版社, 1982), 陳洪의 《中國小說理論史》(安徽文藝出版社), 曾祖蔭 外 6人の 《中國歷代小說序跋選注》(長江文藝出版社, 1982), 黃霖·韓同文的 《中國歷代小說論著選》(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2), 王先霈·周偉民的 《明清小說理論批評史》(廣州:

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시작의 동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연구들이 그 동안 한국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全方位的 이해에 중요한 측면들을 陽地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창작 기법론의 경우는 ‘평점’에 담긴 창작론에 관련된 개념어 및 ‘用語’의 의미에 대한 단순한 풀이에 머물 뿐,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재배열하여 고대 중국인들의 창작론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대부분 현대의 중국 학자들이 서구의 소설 창작론을 바탕으로 짜맞춘 논리를 세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 점은 특히 등장 인물의 전형성에 관한 논의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용어 사용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즉, 현대의 중국 학자들이 거의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는 ‘反封建性’이라는 修飾語의 踏襲은 次置하고, ‘正面人物’이니 ‘反面人物’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된 현대 중국 논문의 용어들조차 무비판적으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용어들야말로 전형적인 ‘목적론’의 오류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역사 시기의 한 지점에서 창작되어 읽혀진 하나의 작품은 물론 그보다 뒤에 오는 시대의 작품을 준비하는 ‘시험’의 단계 혹은 ‘시행착오’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시대의 문학관과 사상을 어떤 식으로건 반영하는 시대적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적어도 1990년대 초반의 몇 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중국의 過去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일환 속에서 얻어진 목적론적 해석은

---

花城出版社, 1988), 그리고 方正耀의 《中國小說批評史略》(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등이 있다.

그 작품에 내포된 또 다른 최소한 '절반의 가치'를 상당 부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외국 문학'의 하나로서 중국 고대 소설을 대하는 기본 입장의 利點을 살려서, 현대 중국 학자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편견의 극복 문제는 허구에 관한 문예론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그것이 주로 현대의 중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 選輯'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료 자체의 정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대개 通用字가 많은 簡字體를 써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繁字體로 되어 있는 고대 원문의 정확한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중국 학자들의 誤識이나 출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衍字'의 校訂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연구가 근본적으로 중국인들에 의해 발굴 정리된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미 언급했던 '文獻의 非固定性' 문제와 더불어 자료의 해석에 관한 중국인들의 설명이 상당 부분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思慮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斷章取義'式으로 摘取된 현대 중국 학자들의 '選輯'에 본질적으로 介在될 수밖에 없는 선입견 내지 고정 관념의 영향을 어떻게 변별하여 제거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의 극복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뜻이다. 어차피 연구 자료의 확보에 선협적인 제약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런 제약을 보완 내지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중국 고대 소설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개성적인 시각을 투영하고, 그것을 통해 독자적인 위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 7

이상에서 필자는 해방 이후 1995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 고대 소설에 관한 연구들의 전반적인 성과와 경향에 대해 영성하지만 몇 가지 관점을 세워서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필자 나름대로 느낀 소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도 자체에 필자 자신의 淺學을 고려하지 않은 과분함과 무모함이 개입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도가 필자와 같은 後學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토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후배 諸賢의 충고와 제언을 향해 귀를 열어 놓았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가장 심각하게 느낀 문제를 한 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연구자들의 논문에 나타난 불분명한 ‘화법’이었다. 논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문제적 인식과 거기에 대한 해법을 조리 있게 설명 또는 주장하는 행위라면,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 본 논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저자가 발굴한, 또는 이해한 개별 지식을 드러내는 데에만 지나치게 힘을 쏟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가 제공하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가를 밝히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경향을 드러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검증 받아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場으로서 ‘학계’의 존재 근거를 허약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고대 소설에 관한 한국 연구자들의 노력이 좀 더 발전적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절되어 막힌 의사 소통의 길을 터 놓는 데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의 중국 고대 소설 연구가 독자적인 위상을 내세울 수 있는 관점과 방법론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lt;부록&gt;: 검색 학술지 종류 (총 75종)

《강원대학교 논문집——인문학연구》 강원대

《고려대 50주년 기념 논문집》 고려대

《국제어문》 국제대 국문과

《欒山金廷漢先生頌壽記念論文集》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고려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 서울대

《논문집》 경남대

《논문집》 국민대

《논문집》 숙명여대

《논문집》 안동대

《논문집》 영남대

《논문집》 원광대

《논문집》 전주대

《논문집》 충남대

《논문집》 한국외대

《논문집》 한림대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동아문화》 서울대 동아문화 연구소

《동양학》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명지어문학》 명지대 국문과

《문리대학보》 서울대

《文理論集》 고려대

《北岳漢學》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서울대

- 《아세아연구》 고려대  
 《語文學》 국민대  
 《어문학논총》 국민대  
 《어문학연구》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효성여대  
 《延世論叢》 연세대 대학원  
 《외국어교육연구》 대구대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연구》 성심외국어전문대학  
 《용봉논총——인문과학연구》 전남대  
 《인문과학》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논총》 명지대  
 《인문과학논총》 건국대  
 《인문과학연구》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 대구대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논총》 경남대  
 《인문논총》 고려대  
 《인문논총》 부산대  
 《人文論叢》 울산대  
 《人文論叢》 전북대  
 《인문논총》 한양대  
 《인문사회과학논총》 서울여대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人文學志》 충북대  
 《中共問題》 건국대  
 《중국논총》 건국대  
 《중국문학》 서울대

- 《중국문학보》 단국대 중문과
- 《중국문학연구》 성균관대
- 《중국문화연구》 대구대
- 《중국소설논총》 한국중국소설연구회
- 《중국어문논집》 부산경남 중국어문학회
- 《중국어문논총》 고려대 중국어문연구회
- 《중국어문학》 영남대 중국어문학회
- 《중국어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 중국문제연구소
- 《중국인문과학》 전남대
- 《중국인문과학》 성신여대
- 《중국학논총》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 《중국학논총》 고려대
- 《중국학보》 서울대 한국중국학회
- 《중국학연구》 외국어대 중국학연구소
- 《중국학연구》 숙명여대 중국연구소
- 《중국학지》 계명대
- 《중어중문학》 전남대 중어중문학회
-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 《중어중문학》 영남대
- 《중어중문학》 한국외국어대
- 《淸大漢林》 청주대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 《泰東古典研究》 한림대
- 《韓國學論集》 한양대
- 《한국학논총》 국민대 한국학연구소